협동학습법을 적용한 가정과 학습지도안 모형 개발: 중학교 가정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Home Economics Lesson Plan Model Development Based on Cooperative Learning Stategy: Focusing o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Area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김 수 현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채 정 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of Ewha Women's Univ.
Soo-Hyun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Jung-Hyun Chae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Home economics lesson plan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cooperative learning stategy focusing o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area. The cooperative learning is an instructional strategy that meets the challenge of helping students master home economics content objectives by acquiring and practicing the social skills that are essential in life for satisfactory relatiohships with peers, families, coworkers, and others in society.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students can satisfy their needs for friendship, power, belongs, and fun.

Practical problems were selected 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area for middle school students assuming that home economics is critical science. Lesson plan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practical problems, "what should we do regarding th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물질적인 혜택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지만 과거의 청소년들보다 살아가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술, 마약, 성적인 활동, 폭력 등 그들을 해롭게 하는 유혹 속에서 살고 있다. 학교는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그들을 도우려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를 비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Glasser, 1988). Glasser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훈육이나 방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알고 이를 충족시키는 학습 방법을 교실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우정, 친구나 교사로부터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것, 학교생활 또는 수업이 신날 만큼 흥미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Glasser는 학교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학습법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므로 우정을 돈독히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므로 인정하게 되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독특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나누므로 수업을 신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의 교육부에서는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개혁으로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꽁꽁 얼어붙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는 것을 다른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과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의 개성화, 자율화, 개별화를 중시하는 열린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고, 계획된 풍부한 환경이 필요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열린교육의 주요 교수법은 협동학습법이다.

미국의 여러 주(Ohio, Pennsylvania, Minnesota, Wisconsin, Iowa, 등)에서는 가정학을 인간생태학 관점에서 벗어나 실천적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하여 보고 가정과 수업에 협동학습법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협동학습법은 학생들이 소모둠으로 활동에 참여하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방법이다. 가정과 수업에서 협동학습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인 학생들이 사회에 의해 끌려가는 수동적이 아닌 자주적인 존재로서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도자적인 자질을 키우고, 타인을 돕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가정과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기에 가정과 수업에 알맞은 교수방법이다(Carson, 1990).

우리 나라에서 협동학습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수학과에서 협동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효성, 1992; 방성익, 1986; 송필원, 1995; 양낙진, 1990; 전진일, 1992; 정문성, 1994; 정춘환, 1992; 하종화, 1993). 그러나 가정과에서 협동학습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구영순(1997)은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가정과 수업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협동학습의 필수 요소를 수업에 직접 적용한 학습지도안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의 성격에 알맞게 중학교 교과내용을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협동학습법을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 적용하여 학습지도안 모형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열린 수업을 지향하고 인간생태학에서 실천적 비판과학으로 가정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가정과 교사들과 가정과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협동학습법을 연구하고 실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가정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교육내용을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2) 설정된 교육내용에 대해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학습지도안 모형을 제시한다.
3) 협동학습법의 학습지도안 모형으로 재구성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내용 중 "가족간

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의 실천적 문제에 관한 학습지도안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협동학습의 정의

협동의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이동원, 1995). Johnson과 Johnson(1990)은 협동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이란 성, 인종, 능력, 빈부의 격차 등에서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과제를 서로 돕고 책임을 공유하며, 과제 해결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학습에서는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결과 집단보상을 받게 되는 수업방법이다.

2. 협동학습의 필수요소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요소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대면적 상호작용, 개인적인 책임, 소모둠 활동 기술, 모둠활동 점검과정의 다섯가지이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함께 죽던지 아니면 산다"라고 믿어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한다. 다시 말해 다른 구성원이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도 성취하지 못하는 관계 즉 다른 동료의 학습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학습이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만드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 의존성, 보상 의존성, 자원 의존성, 정보 의존성, 역할 의존성이다.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Promotive Interaction)은 학습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관계를 말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동료에게 설명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책임(Individual Accountability / Personal Resposibility)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학습 자료를 학습하는 동시에 다른 구성원이 학습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학생들은 모둠 과제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평한 개개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책임은 모든 모둠 구성원들이 협동해서 배움으로써 진실로 강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핵심이다.

소모둠 활동기술(Interpersonal and Small Group Skills)에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가지 기술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서로를 믿고 아는 기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기술; 서로서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기술; 그리고 구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모둠활동 점검과정(Group Processing)은 구성원들이 그들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작업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Johnson과 Johnson은 이러한 다섯가지 필수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라고 하였다.

3. 협동학습의 구체적인 절차

Johnson과 Johnson(1990)에 의하면 협동학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열 아홉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는, 교수목표를 상세화하여야 한다. 교수목표는 수업 중에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목표와 협동을 긴밀하게 촉진시키기 위한 소모둠 활동 기술의 목표로 나눠 진다.

둘째, 모둠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둠은 2명에서 6명 정도가 적당하다. 모둠의 크기는 시간량, 학생들의 공동활동 기능정도, 자료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을 모둠에 배치해야 한다. 모둠의 구

성원들은 능력에 있어서 이질적이 되도록 한다. 동질적인 모둠보다 이질적인 모둠에서 발산적인 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며, 설명에 대해 더 많이 주고 받으며, 자료를 토론함에 있어 더욱 더 넓은 관점을 취하게 되고, 이해의 깊이, 추론의 질, 장기적 기억의 정확도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려는 정도와 과제를 수행하려 하지 않는 정도의 차이가 많은 학생들을 같은 모둠에 함께 배치한다.

넷째, 모둠들을 교실에 배정해야 한다. 모둠 구성원끼리는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구성원간에 서로 마주 볼 수 있으며, 다른 학습모둠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조용히 말할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가깝게 앉아야 한다.

다섯째, 상호의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자료를 계획해야 한다. 상호의존성은 증진시키는 방법은 자료 상호의존성, 정보 상호의존성, 타모둠과의 경쟁을 통한 상호의존성 등 세가지가 있다. 자료 상호의존성이란, 협동학습 초기에는 각 모둠에 자료 복사물을 한부씩만 주어 같이 보게 하고 학생들이 서로 공동연구에 익숙해지면 각 학생들이 자료복사물을 개인적으로 한부씩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상호의존성이란, 모둠 구성원들에게 다른 책이나 자료를 주거나 각 학생들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갖게 하여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모둠과의 경쟁을 통한 상호의존성이란, 대회형식으로 모둠간의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모둠내 구성원간에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 의존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수자료를 계획하여야 한다.

여섯째, 상호의존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역할을 정하는 방법은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다. 역할들 중에서 과제에 따라 교사가 모둠의 구성원수에 맞게 선택하여 제시한다. 교사가 제시한 역할들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하여 각각 한가지 역할을 나눠 맡게 하고, 한 과제가 끝나면 제비를 돌려서 역할을 골고루 맡게 한다.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맡은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에 참여하면서 특히 그 역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학술적 과제(수업 과제)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수업 과제를 명료하게 지정하여 학생들이 과제분담에 대해 분명하게 하도록 한다. 할당된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여덟번째, 긍정적인 목표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키기위해 구조화해야 한다. 모둠에게 단일의 결과물, 보고서, 또는 논문을 요청하는 방법, 모둠전체가 잘했을 때 보너스 점수를 준다거나, 모둠별로 성적을 제공하여 모둠상을 주는 방법등이 있다.

아홉번째, 개인적인 책임감을 구조화해야 한다.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거나, 모둠 구성원 중에서 무작위로 학생을 뽑아 질문하거나, 각기 다른 작업을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구성원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 다른 문제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 모둠으로부터 임의의 한 학생의 학습결과를 골라서 점수를 메기는 방법 등이 있다.

열번째, 상호모둠간의 협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모든 모둠들이 사전에 설정된 최고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학급전체에 보상함으로써 모둠간에 협동을 촉진할 수 있다.

열한번째, 성공을 위한 평가기준를 설명해야 한다.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 평가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평가기준은 모둠의 각 구성원 개인에게 도전적이고 현실적이 되도록 맞춰져야 한다. 또한 전체학급이 도달하는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열두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초기에는 모둠의 좌석에 앉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자료를 주고 받기,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이때 교사는 기대되는 행동목록을 아주 길게 설명해서는 안된다. 강조하기 위해 하나 또는 두가지 행동만 설명해도 충분하다.

열세번째, 학생의 행동을 모니터하여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이 모둠 활동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본다면 그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동적 기술을 익히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

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경험한 후에 관찰자의 역할을 배정받은 학생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집단에게 피드백(feedback)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열네번째, 과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시를 명료화하기, 절차와 전략을 검토하기, 질문에 답하기, 과제기능들을 가르치기 등의 과제지원은 명료하고 학습에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들로 서술되어야 한다.

열다섯번째, 공동활동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그들의 모둠활동 중에 모둠활동 기술이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개입하는 것보다 우선 각 모둠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개입해야 할 최적의 시기는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을 원할 때이다.

열여섯번째, 수업의 종결을 준비해야 한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이해했는지, 그것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요약하도록 한다.

열일곱번째, 학생들이 학습한 학습의 질과 양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고서, 모둠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단일 답안지, 개인별 시험점수의 평균, 사전에 설정된 평가기준에 도달한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모둠활동 태도 점수, 모둠의 정보 획득(성취) 점수 등에 따라서도 평가할 수 있다.

열여덟번째, 모둠의 기능수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각 학습모둠에 관찰자를 배정하고, 관찰한 결과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잘 수행한 것과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적어 내게 한다. 또한 교사가 모둠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적어도 매일 몇분씩 허용해야 한다.

열아홉번째, 학문적 논의를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어 6명의 모둠구성 후 3명씩 조를 나누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주고 입장에 따라 준비한다. 그런 다음 각 조는 다른 조에게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서로 논쟁한다. 각 조는 입장을 바꿔서 다시 논쟁한다. 마지막에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협동학습 절차 19단계는 협동학습의 다섯가지 필수요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꼭 순서대로 따를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단계는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기 위해서 정인성(1993)이 제시한 교수설계과정을 따랐다.

1. 교수설계의 과정

일반적인 교수설계 과정은 크게 분석, 설계 및 개발, 평가의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이 단계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으며, 교수 설계의 결과물은 학습목표, 교수내용, 교수방법 및 매체,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 된 교안이다.

첫째, 분석단계에서 다음의 절차를 밟았다. 1) 학습자의 특성을 문헌을 통해 파악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특성은 학습자의 수, 성별, 직업, 교육정도, 나이 등의 정보와 일반적 학습심리에 대한 정보, 일반적 언어, 수리능력 및 지능에 대한 정보등을 파악하고, 구체적 특성으로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내용에 대한 지식 정도, 선수학습능력 정도,

〈표 1〉 교수설계의 과정

단 계	소 단 계	
분 석	1) 학습자의 특성 파악 2) 학습목표의 설정 3) 교수내용 관련 자료의 분석	
설계 및 개발	4) 교수내용의 체계화 5) 교수방법의 선택 6) 보조자료의 개발	
평 가	7) 수업 예행 연습 및 평가 8) 교안 수정 및 완성	→ 교안

자료 : 정인성(1993). 실천적 교수 방법. 교육과학사, 38.

학습동기의 수준정도 등을 파악한다. 구체적인 대상에 실제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와같이 세세히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만을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있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만을 고려하였다. 2)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 나눈 5개 영역중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이 들어가 있는 중학교 가정 1학년과 3학년 교과내용에서 큰 주제를 뽑았다. 이렇게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서 뽑은 주제들을 가정과 교육내용으로 적합한 실천적 문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 다음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3) '가정과 교육과정'과 '가정교육', '협동학습'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 자료와 정기 간행물을 찾아서 문헌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1) 위에서 구성된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보조개념을 설정하여 교수내용을 체계화하였다. 2) 협동학습 모형이 가정과교육의 목표달성에 적합하다고 보고, Johnson과 Johnson의 'Circles of Learning'에 나오는 협동학습 단계와 오하이오주에서 개발한 'Work & Family Life Curriculum Guide'의 형식을 참고하여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3) 'Work & Family Life Curriculum Guide'와 교과내용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보조자료를 개발하였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전문가에게 학습지도안을 읽고 평가할 것을 부탁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IV. 협동학습 지도안 개발 모형

1. 학습자의 특성 파악

본 연구에서의 학습자는 중학생으로 청년초기 단계(11-17세)에 속한다. 이 시기의 특성은 신체변화가 급격하고 의미있는 인지적 성장을 경험하며 동료의 승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타인의 느낌이나 사고 혹은 의도를 추론하기 시작하며 인지적 성장에 따라 아동은 자신의 생각은 물론 타인의 생각을 보다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청년초기의 아동들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며 점점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청년초기의 가족관계는 아동기의 가족관계와는 다른 어느정도의 수정과 새로운 의미의 가족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승인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정서적으로는 강하고, 정서의 기복이 심하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자랑스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사랑과 증오의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김태련, 장휘숙, 1992).

2. 교과과정의 내용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영역의 교과내용을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 개인적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변화가 급격한 청소년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 무 엇을 해야만 하는가?
- 책임있는 이성교제를 하기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책임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구성된 일곱개의 실천적 문제 중에서 지면관계상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실천적인 문제를 선정하여 개발된 학습지도안을 소개하겠다.

3. 학습 목표 설정

본 협동학습 지도안에서 학습 목표는 협동학습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업 목표와 소모둠 활동 기술 목표로 나뉘어 서술하였다. 본 지도안에서의 수업 목표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실천적 문제는 학생들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해결되기 때문에, 수업목표는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행동은 학습자가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행동 전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변화된다 (Laster, 1987).

본 수업지도안의 일반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학생들이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는데 있다.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 의사소통을 하는지,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소통 유형 및 의사소통 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 후에 이상적인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학습 목표가 필요하다. 소모둠 활동 기술 목표는 협동학습을 하는 활동중에 모둠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협동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진단하고 서로에대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이 요구된다.

4. 학습지도안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정리할 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습지도안의 기본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가이드와 Johnson과 Johnson이 제시한 협동학습의 필수요소를 참고로 하여 재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개발한 학습지도안의 기본틀은 제목, 교사이름, 학교이름, 과목, 대상학년, 학습목표와 학습내용(보조개념), 학습에 필요한 보조자료, 요구되는 시간, 모듬사이즈, 모듬구성원의 역할 분담, 학습활동, 협동학습에서 요구되는 다섯가지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학생학습활동과 토론내용, 교사활동으로 나눠져 있다.

본 연구에서 문헌을 참고하여 학습지도안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습지도안의 형태가 교사 주도적인 교육과정에 적합하고, 학습자 중심이 되는 협동학습 방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내용을 1차시 단위의 시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계획된 본시학습지도안을 구성하지 않고 보조개념이라는 내용 중심으로 학습지도안을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V. 협동학습법 학습지도안 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한 예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내용으로 재구성하여보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 모형에 따라 개발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교과과정 내용 구성에 제시한 일곱가지의 실천적 문제들을 모두 학습지도안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실천적 문제를 택하여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실천적 문제 :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제목 : 바람직한 의사소통
나. 교사이름 : ○ ○ ○
다. 학교이름 : ○ ○ 중학교
라. 과목 : 가정
마. 대상학년 : 3학년
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보조개념)

실천적 문제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업목표	일반목표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잘 한다.
	학습목표	1.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이유를 정의한다. 2.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정의한다. 3. 여러 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비교한다. 4. 여러가지 의사소통 유형중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분류한다. 5. 자신의 가족의 의사소통 형태를 평가한다. 6. 이상적인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
소모듬활동 기술의 목표		1. 상대방의 언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2. 서로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3. 의견차이를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4. 서로를 좋아하게 된다. 5. 정확하게 듣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보조 개념		1. 의사소통하는 이유 2.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 3. 의사소통 유형 4.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 판단 5. 바람직한 의사소통하는 전략

사. 학습에 필요한 보조자료 : 포스터, 매직, 색연필, 학습자료지, 카드, OHP

아. 요구되는 시간 : 4~5시간 정도

자. 모둠사이즈 : 5~6명씩 8모둠

차. 모둠 구성원의 역할분담

기록자(모둠의 결정을 받아 적고, 모둠의 기록을 요약, 편집하는 사람), 격려자/분위기 조성자(모둠의 구성원들이 기여하도록 격려하는 사람), 관찰자(모둠이 얼마나 잘 협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사람), 운영자(토론의 진행을 맡고, 다른 학습모둠과 교사와 대화하는 사람), 발표자(모둠에서 결정된 토론 내용을 대표로 발표하는 사람), 정확한 지도자(다른 구성원의 설명이나 요약에 있는 실수를 수정하는 사람)

카. 학습활동

(1) 의사소통하는 이유

학생학습활동	토론내용	교사활동
(나)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말이나 표정, 몸짓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둠 구성원끼리 동의된 정의를 해보자. (예) -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듣는 것 - 의미를 공유하는 것 (나)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이유'에 대해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으로 동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보자.	·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동의된 정의를 이끌어 냈는가? 말이나 표정, 몸짓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가? · (나)가 가능했는가? 가능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의사소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모둠구성원끼리 가까이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활동하게 한다. 모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 모둠활동규칙을 읽어준다. - 모둠안에 있기 - 조용히 말하기 - 사람이 아닌 생각을 비판하기 - 잘 듣고, 정확히 말하기 - 친구의 이름 부르기 - 친구의 얼굴을 보고 말 하기 - 칭찬을 많이 하기 (★) ▶ 설명 →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말(언어)을 사용하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몸짓,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다.

▣ 대면적 상호작용 ★소모둠 활동 기술

(2)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

학 생 학 습 활 동	토 론 내 용	교 사 활 동
(가) 가족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경우를 인덱스 카드에 써 넣는다. 카드를 통속에 넣은 뒤 섞는다. 모둠구성원들이 통에서 카드를 하나씩 뽑아 읽는다. (나)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을 적어 본다. (다) 가족으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적어 본다.	· 각 상황에서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모둠 구성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각 상황에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 · 각 모둠의 구성원이 쓴 것은 비슷한가? 공통점은 무엇인가? 듣기 좋은 말인가? · 각 모둠의 구성원이 쓴 것이 비슷한가? 이 중에서 가족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라) 가족들이 자신으로 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을 조사해 온다. (마) 각 모둠이 아래의 사례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한 후, 토론한다. (사례1) 1시간전쯤에 동생이 친구와 집에서 놀다가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께서 장을 보고 들어오시면서 거실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원래 내가 지저분하고 치울줄 모른다면서 화를 내시고 계시다. 나는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사한 내용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혹, 놀랄만한 것은 없었는가?	▶ 모둠 구성원 모두가 조사해 온 경우에 모둠점수 20점씩을 준다.(♥, ♣) ▶ OHP를 사용하여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2) 형과 나는 옷을 같이 입는다. 그런데 옷가지 수는 형이 훨씬 많다. 어느날 형의 자켓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이를 본 형이 '야, 너 그 옷 내가 오늘 입을려고 했었는데 입고 나가면 어떻게 해? 이제부터 내 옷 입을 때, 나한테 허락받고 입어, 알았어?'. 그때 '형은 내 옷 입을 때 나한테 허락 받았나?' 하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그 다음부터 서로 허락을 받고 입기로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형은 내 옷을 입을 때 나의 허락을 받기는 커녕 내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있다.	· 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자신의 경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레포트로 제출하게 하여 가장 잘한 모둠에 50점, 그 다음으로 잘한 세 모둠에게는 40점, 나머지 모둠에게는 30점을 준다.(♥)
(사례3) 밖에는 비가 온다. 친구와의 약속에 늦어 바쁘게 나가다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들어 왔다. 그런데 우산이 보이질 않는다. 전날 형이 내 우산을 빌려 썼다는 생각이 나서 형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형은 TV를 보느라고 건성으로 '내 책상에 가봐'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나는 마음이 급해져서 어디 있는지 다그쳤다. 형은 '그럼, 나도 몰라,'. 나는 '형이 모르면 누가 알어?'라고 했는데, 형은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휴, 시끄러워, 너 때문에 TV하나도 못 보겠어' 하는 것이다.		

♥ 긍정적인 상호의존(보상상호의존) ♣ 개인적 책임

(3) 의사소통 유형

학 생 학 습 활 동	토 론 내 용	교 사 활 동
(가)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6개의 자료를 6명의 모둠구성원이 하나씩 읽어 내용을 파악한 후, 다른 모둠구성원에게 설명한다.(♠) 〈학습보조자료 1〉참고.	· 자신은 어떤 의사소통 유형을 잘 사용하는가? 그때마다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만족스러운가? 앞으로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신이 공부한 자료를 모둠 구성원에게 설명해 보도록 한다.(♣) 자료를 잘 이해하고 설명을 알아 듣게 잘 할 경우는 모둠 점수 30점을 준다.(♥)
(나) 다음의 가상적 상황에서의 5가지 반응이 어떤 의사소통 유형에 속하는지 평가해 보자. ※가상적 상황 : 아버지가 뭔가 아들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 "제기랄,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이 얼간아?" ② (아래로 향한 얼굴, 나직한 목소리로 다가오며) : "어어 참, 인하야! 안됐다. 괜찮겠니?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아냐, 괜찮다, 단지 …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다만, 조금만이라도, 안 그래? ③ (이화곁에 서있는 인하에게 말하며) "말해봐 인하야, 네 방이 이화 방만하지? 아냐, 별거 아냐. 그저 집 한바퀴를 돌아보고 왔어. 자러 가기전에 어머니를 보라고 이화에게 이르거라." ④ "우리 가정의 능률을 조사해 보니 이 부분, 즉 네가 있는 곳에서 능률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을 알겠구나. 여기에 대해 할말 있으면 해 봐." ⑤ "인하야, 네 방이 엉망이구나. 어제부터 침대정리를 안 했더군. 그만 가서 어떻게 된 건지 보자."	· 가상적 상황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명확히 알수 있으면서 인하가 자신의 잘못을 수치심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대화내용은 어떤 것인가?	▶ (나)에 대한 각 모둠의 동의된 답을 적어 내게 한다. 다맞은 모둠에게 모둠점수 20점을 준다.(♥) 답: ① 비난형 ② 회유형 ③ 혼란형 ④ 계산형 ⑤ 수평형

♥ 긍정적인 상호의존(보상상호의존) ♣ 개인적 책임 ♠ 긍정적인 상호의존(정보상호의존)

〈학습보조자료 1 -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자료〉

〈자료1-1〉

◀회유형▶

· 말 : 동의한다("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좋다. 나는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을 뿐이다.").
· 몸 : 회유한다("나는 속수무책이다")
· 내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가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다.")

⇨ 회유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건 상관없이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사과하고, 결코 반대하지 않으며 언제나 비위를 맞추면서 말한다. 그는 "아첨꾼"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말한다. 그에겐 언제나 그를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Sati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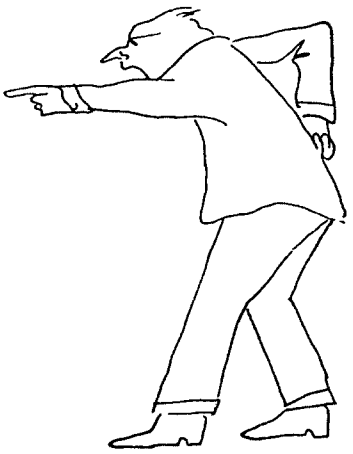
자료 :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홍익제, 79-80.

〈자료1-2〉

◀비난형▶

· 말 : 반대한다("당신은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 몸 : 비난한다(내가 여기서 우두머리다).
· 내면 :(나는 외롭고 실패자이다).

⇨ 비난자는 결점 발견자이고 독재자이며 우두머리이다. 그는 높은 사람으로 행동하며 "당신만 아니었더라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것인데"라고도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깎아 내려야 한다. 비난자는 어떤 일에 대해 정말로 알고 싶은 것보다 자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자신이 정말 아무것에도 가치가 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복종할 사람만 얻을 수 있게 되면, 자신이 뭔가에 중요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Satir,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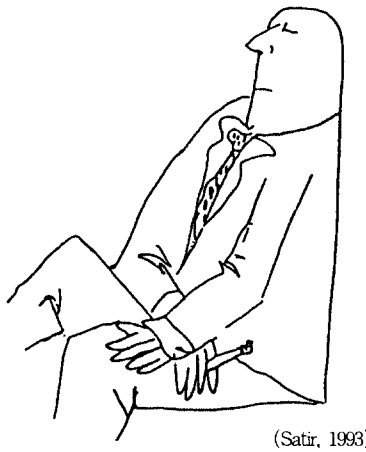
자료 :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홍익제, 81-82.

〈자료1-3〉

◀계산형▶

· 말 : 초이성적("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여기에 있는 누구의 손이 일을 너무해서 닳아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 몸 : 계산한다(나는 조용하고 냉정하며 침착하다.).
· 내면 :(나는 상처를 받기 쉽다).

⇨ 계산자는 어떤 감정도 나타내는 법이 없이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이다. 그는 조용하고 냉정하며 차분하다. 그는 실제 컴퓨터나 사전에 비교될 수도 있다. 비록 그 뜻이 확실치 않더라도 가능한 한, 제일 긴 말을 사용한다. 최소한 지식인처럼 들릴 것이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게 조심하는데 열중해 있으며 말을 찾아내느라 골똘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역할의 슬픈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형이 이상적인 목표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Satir, 1993)

자료 :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홍익제, 83-84.

〈자료1-4〉

◀혼란형▶

· 말 : 관련이 없다(말에 뜻이 없다).
· 몸 : 각도가 지고 다른 곳에 떠나 있다.
· 내면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

⇨ 혼란형의 행동과 말은 그 외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는 무관하다. 그는 결코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말에 결코 요점이 없다. 모든 사람의 질문을 무시한다. 어쩌면 다른 것에 대한 자신의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자료 :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홍익제, 85-86.

(Satir, 1993)

〈자료1-5〉

◀수평형▶

· 말 : 메시지는 하나이고 직접적이고 정직하다. 목소리는 얼굴표정과 몸의 자세, 음정과 어울리는 말을 한다.
· 몸 : 자유롭게 움직이고 감정을 나타낸다.
· 내면 : 나는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 한다. 무엇에건 진실하다. 행동과 일치한다.

⇨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것을 깨닫게 되면 실제로 사과한다. 당신은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
때때로 비판하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항상 제공하는 새로운 방향이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원만함, 충만함, 생동감, 공개성과 그리고 활력이 있다.

자료 :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홍익제, 88-89.

〈자료1-6〉

① 폐쇄체계
자 존 심 : 낮다.
의사소통 : 간접적, 불투명, 구체적이지 못함, 불명확함, 비난하기, 회유하기, 계산하기, 혼란시키기.
규 칙 : 숨겨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비인간적 규칙이 고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규칙을 따르는 한도내에서만 변화가능. 논평에 제한이 가해 있음.
결 과 : 우연적, 무질서적, 부적절, 파괴적. 자기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의심스러워지고 낮아지며 갈수록 더 많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한다.

② 개방체계
자 존 심 : 높다.
의사소통 : 직접적, 분명한, 구체적, 명확함, 수평적
규 칙 : 명백하고, 시대에 맞고, 인간적인 규칙, 규칙은 필요가 발생하면 바뀐다. 어떤 일에도 언급할 충만한 자유
결 과 : 현실에 직결되어 있고, 적절하며, 건설적 자기가치는 더욱 확실해지며,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것을 끄집어 낸다.

자료 :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홍익제, 134-135.

(4)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 판단

〈가족도표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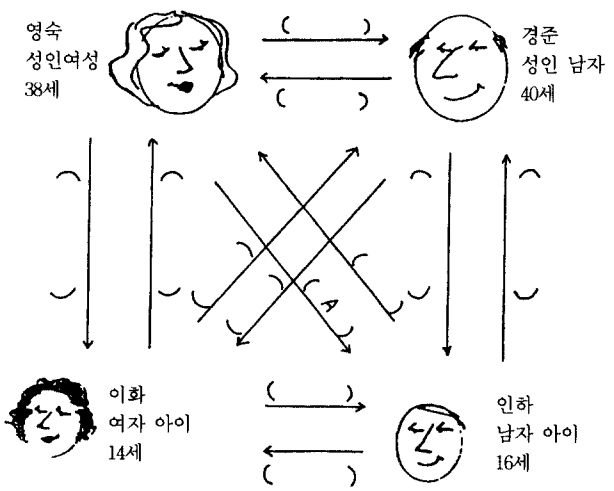
학 생 학 습 활 동	토 론 내 용	교 사 활 동
(가) "가족도표 그리기"를 완성한다 〈학습보조자료 2〉. 모둠구성원끼리 완성된 결과를 돌려 보면서 서로의 가족을 이해한다. (나) 각 가족의 의사소통의 유형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적어 보게 한다. - 가족 구성원의 성격 - 가족의 역사적 배경 - 사회적 영향(사회적 분위기) - TV의 영향 - 특정적인 사건이나 상황 -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쌓인 경험 - 현재 각 가족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일 - 종교적인 영향 - 교육적인 영향 - 시간적 여유 정도 - 기타( )	· 가족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무엇인가? ·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요인을 우리 가족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 모둠구성원중에 임의로 한 명을 지적하여 그 학생이 다른 모둠구성원 가족의 도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가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게 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경우 모둠 점수 20점을 준다.(♥)

♥ 긍정적인 상호의존(보상상호의존)

〈학습보조자료 2-가족 도표그리기〉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가족의 얼굴을 모퉁이에 그리고, 얼굴과 얼굴사이에 화살표를 쌍방향으로 표시한다. 그런 다음 가족구성원이 가장 많이 쓰는 의사소통 유형을 적어 넣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은 다음에서 A칸에 써 넣는다.

- 다 음 -



(Satir, 1993)

(5)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전략

학 생 학 습 활 동	토 론 내 용	교 사 활 동
(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이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계획한다. 이때 자신의 전략표와 집에 게시할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전략표를 포스터에 써 넣는다. (나) 모둠 구성원들이 서로 돌려 가며 읽고 부족한 점이나 현실성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조언한다. 다 읽고 조언이 끝나면 사인을 한다.(♣)	· 전략이 현실성이 있는가?	▶ 신중하게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전략을 짠 학생순으로 포스터에 개인점수 20점, 15점, 10점을 준다. 모둠구성원중에서 3명이상이 20점을 받은 경우, 모둠구성원 모두에게 가산점 5점을 준다. ▶ 모둠 구성원으로 모두로부터 사인을 받은 경우 10점씩을 준다.(♥)
(다) 조언을 참조하여 수정한 전략표를 일정기간동안(1주일정도) 실행하고 스스로 반성 및 평가한 결과를 작성하여 모둠원들에게 발표한다.	· 수행결과, 계획은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수행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게시판에 붙힌다.
(라) 지금까지의 모둠 학습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활동과 비효과적인 활동을 논의한다.(◈)	·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까?	▶ 학생들이 요구하기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 개인적 책임 ♥ 긍정적인 상호의존(보상상호의존) ◈ 모둠활동 점검과정

타. 협동학습에서 요구되는 다섯가지 요소

협동학습의 본질적인 요소	수 업 에 서 의 적 용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 목표상호의존성 :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모둠 구성원 모두 공동의 목표임을 설명한다. '개인의 목표는 곧 모둠의 목표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원리와 같음을 설명 한다. · 보상상호의존성 : 모둠이 다른 모둠보다 잘할 경우 모둠점수(모둠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는 것)를 주거나, 모둠구성원의 몇 명이상(교사가 기준을 제시한 인원수)이 제시 한 목표기준에 도달한 경우 모둠점수를 준다. 서로의 레포트를 읽고 조언을 써 줄 경우에 보너스 점수를 준다. 공동의 레포트를 작성하게 하여 모둠점수를 준다. · 자원상호의존성 : 자료지는 모둠에 하나만 준다. · 정보상호의존성 : 모둠구성원들에게 자료의 일부만을 주어 각자 공부한 뒤 서로 가르쳐 주게 한다. · 역할상호의존성 : 역할을 나눠 맡게 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에 개인과 모둠구성원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대면적 상호작용	· 모둠구성원끼리 가까이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활동하게 한다. · 모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적인 책임	· 수업이 끝날 무렵에 자신이 한 일을 자세히 적어 내게 한다. · 수업진행중에 각 모둠구성원 중에서 임의로 지적하여 질문을 한다. · 개인이 해야 하는 조사나 숙제를 내준다.
소모둠 활동기술	· 모둠활동규칙을 읽어준다. - 모둠안에 있기 - 조용히 말하기 - 사람이 아닌 생각을 비판하기 - 잘 듣고, 정확히 말하기 - 친구의 이름 부르기 - 친구의 얼굴을 보고 말하기 - 칭찬을 많이 하기
모둠활동 점검과정	· 관찰자가 모둠활동을 관찰한 결과를 보면서 검토, 반성, 개선점, 규칙 등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VI. 결론 및 제언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주적인 인간육성과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가정과교육 현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정생활 및 사회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정과교육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민주적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인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육성으로서, 학문적인 목표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사회적인 목표까지 포함하므로 강의식, 일제식, 교사주도형의 수업 모형으로는 온전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협동학습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기본 욕구인 우정, 인정, 흥미를 채워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을 해롭게 하는 유혹의 상황속에서 벗어나 생활을 신나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협동학습은 5.31 교육개혁에서 중시하는 개별화, 개성화, 자율화를 이룰 수 있는 가정과 수업에 적절한 교수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협동학습지도안 모형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모형과는 달리 학문적인 목표 뿐 아니라 사회적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인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하므로 협동학습 모형을 가정과 수업에 적용하여 개발하는 것은 가정과 수업에 대안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로서 의의있는 일이이며,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지향하고 있는 '열린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협동학습법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법에 관한 교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동학습법은 가정과교육의 목표달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교사 혼자서 이해하고 적용할 경우에, 자칫 잘못 이해·적용하여 전통적인 그룹활동과 별로 차이없는 수업으로 이끌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 과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연구원, 교수, 중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 지원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들로 구성된 동료교사모임이 만들어져서 미비한 학습보조자료를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기존에는 교육과정 개발시 현장의 교사가 주축이 되기 보다는 대학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점들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필요에 부합한 교육과정이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었는데, 교육과정 개발 지원체제가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사정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를 현장의 교사가 적용한 후 피드백을 한다면 보다 필요에 부합한 교육과정이 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여건, 정서, 가치관, 분위기 등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를 경쟁사회로 단정짓고 '1등 정신'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테두리안에서 협동학습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사회 분위기, 교육지향이 먼저 바뀌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협동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대평가를 지향하는 선발적 교육제도가 절대평가를 지향하는 발달적 교육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협동학습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지필고사가 70~9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30%는 기능,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외에 협동학습 평가결과를 교사재량으로 융통성있게 넣을 수 있는 평가제도가 자리잡혀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이 학습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이나 참고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구영순(1997). 협동학습을 적용한 가정과 수업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 김태련과 정휘숙(1992).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3) 김효성(1992). 소집단 협동학습이 수학교과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4) 방성익(1986). 협동학습전략과 경쟁학습전략의 교육효과비교(상-하). 교육연구, 4(5), 14-18.
5) 송필원(1995). Cooperative Learning 방법을 이용한 기초확률 교육의 효과에 대한 고찰. 육군 제3사관학교 논문집. 40, 529-555.
6) 양낙진(1990).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이동원(1995). 인간교육과 협동학습. 서울 : 성원사.
8) 전진일(1992). 대집단 학습과 소집단 학습이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 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정문성(1994). 사회과 학업성취에 대한 협동학습의 효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 정인성(1993). 실천적 교수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11) 정춘환(1992). 협동학습과 경쟁학습이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2) 하종화(1993). 학습능력에 따른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3) Satir, V.(1993). peoplemaking. 성민선(역).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 만들기. 서울 : 홍익제.
14) Chae, J. H.(1995). Assessment of Korean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with implications for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15) Carson, L.(1990, Feb.). Cooperative learning in the Home Economics classroom. Journal of Home Economics, 37-40.
16) Glasser, W.(1988, March). On students' needs and team learning: A conversation with William Glasser. Educational Leadership, 38-45.
17) Johnson, D. W, & Johnson, R. T.(1990). Circles of learning :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Edina, Minesota : Interaction Book Company.
18) Laster, J. F.(1987). Problem solving : Definition and meaning. In R. G. Thomas(Ed.), Higher order thinking : definition, meaning and instructional approaches(pp. 35-43). Washington, D.C. :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